

임진강유역 고구려城의 性格 再考

- 호로고루 · 당포성 · 은대리성을 중심으로 -

권 순 진*

1. 머리말
2. 3대城의 조사현황
3. 3대城 주변의 자연환경과 군사지리적 특징
4. 임진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動向
5. 3대城의 성격
6. 맺음말

1. 머리말

경기도의 북부에 위치한 임진강유역은 고대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교통, 군사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력이 서로 팽팽하던 삼국시대에 임진강유역으로의 진출을 발판으로 각 정치체가 세력 확대를 노렸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 (재)국방문화재연구원

과정에서 삼국은 통치영역의 확장과 유지를 위한 공격전과 방어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¹⁾

이러한 고대사의 환경을 반영하듯 임진강유역에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다수의 관방유적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은 이른바 임진강유역의 대표적인 고구려성곽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진강유역의 역사적 환경에 비해 이 지역의 고대 戰鬪²⁾에 대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이로 인해 임진강유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도 대부분 문헌자료와 일부 고고학적 조사에 따른 개별성곽의 축조시기와 구조, 사용주체에 대한 분석, 해당 관방유적의 시·공간적 분포양상과 그에 따른 관방체계 및 영역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³⁾ 이 가운데 특히 임진강유역의 대표적인 고구려 3대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4세기 중·후반 고구려의 남진시에는 남진의 배후거점이었으며, 둘째, 6세기 중·후반 羅濟同盟에 의해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임진강유역으로 물러났을 때에는 임진강을 국경하천으로 삼고 이를 최후 방어선으로 삼아 3대성을 이용하였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⁴⁾ 이밖에

1) 金瑛河, 「삼국시대의 戰爭 -三國史記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고대의 전쟁과 무기』, 제5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대회, 2001, 25~26쪽.

2) 전쟁과 전투는 비슷한 용어이기도 하지만 의미가 다르다. 전쟁이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한 군사작전이라면, 전투는 그보다 낮은 전술적 차원에 바탕한 무력충돌이다. 즉, 전투는 전쟁기간 중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일어난 무력충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투현장을 재현한다는 것은 가변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일반화시키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김주성, 「7세기 삼국 고대 전투모습의 재현」, 『軍史』 81호, 2011.12. 43쪽).

3) 沈光注, 「남한지역 고구려 유적」, 『高句麗研究』 12, 社團法人 高句麗研究會, 2002.

沈光注, 「南韓地域 高句麗 城郭 研究」, 詳明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5.

梁時恩, 「남한 내 고구려 성곽의 구조와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6, 고구려발해학회, 2010.

——,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10-2호, 중부고고학회, 2011.

4) 崔鍾澤, 「京畿北部地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高句麗研究』 8, 社團法人 高句麗研究會, 1999.

백종오, 「경기북부지역 고구려성곽의 분포와 성격」, 『연보』 3, 경기도박물관, 2000.

——, 「臨津江流域의 高句麗 關防體系」, 『臨津江流域의 古代社會』, 인하대박물관,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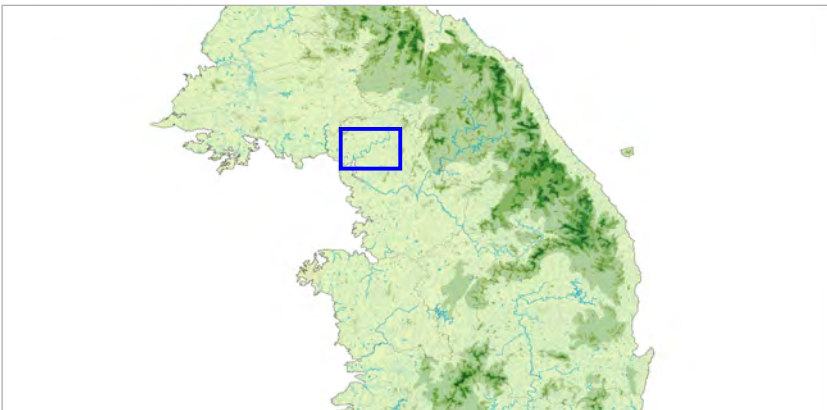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 考察」, 『文化史學』 17, 한국문화사학회, 2002.

徐榮一,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단국사학회, 2006.

성곽의 기능적 측면에서 개별성곽을 가지고 임진강 北岸의 천연 현무암 斷崖의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성곽을 쌓았으며, 유사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견해도 있다.⁵⁾ 그러나 전투의 기본양상인 攻擊과 防禦라는 관점에서 전장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및 기능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3대성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미진하였다.⁶⁾

따라서 本考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軍事史的 觀點에서 3대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공격과 방어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집중적으로 推察하여 당시 임진강유역에서 古代 군사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⁷⁾

<지도 1> 임진강유역 고구려 3대 성곽 위치도 1



정재열, 「4-7세기 삼국의 군사전략 연구-임진강 유역 성곽과 전쟁사를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5) 徐榮一, 「연천 은대리성 축조공법과 성격 고찰」, 『文化史學』 31, 한국문화사학회, 2009.
- 6) 현재까지 임진강유역에는 대략 20여 개소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지표 혹은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물론 현재도 연천 무등리보루, 전곡리토성 등에 대한 시·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이에 대한 성격의 일단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필자가 호로그루와 당포성, 은대리성을 주 검토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성 모두 성 내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삼국시대 임진강유역에 대한 부족한 문헌기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3대성 모두 국가 사적으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으나 국가 사적의 위상에 맞는 연구성과는 발굴조사된 증거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편이다.
- 7) 전투사연구는 개괄적 방법(Extensive method)과 집중적 방법(Intensive method)으로

〈사진 1〉 임진강유역 고구려 3대 성곽 위치도 2 (출처: 구글어스 위성사진)



2. 3대성의 조사현황

임진강유역에서 조사 보고된 고구려 성곽은 20여개소에 이르며, 이 가운데에서도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은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유적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이다.⁸⁾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재까지

구분된다. 개괄적 방법은 여러 전쟁과 전역 및 전투를 광범하게 개관하면서 연구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전쟁상황을 너무 단순화하는 약점이 있으나 여러 전투를 취급하여 많은 경험적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집중적 방법은 몇 개의 전역과 전투를 한정적으로 집중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제한된 폭의 지식만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연구목적에 맞는 정밀 분석을 통하여 전투의 실상에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정도용, 『군사사 연구방법론』, 『軍史』 25호, 국방부 군사편찬위원회, 1991, 37쪽) 본고는 후자인 집중적 방법에 해당된다.

8) 이외에 현재까지 임진강유역 고구려성곽 가운데 시/발굴조사가 진행된 유적으로 덕진산성(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과주 덕진산성 지표 및 시굴조사보고서』, 2006)과 연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3대성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호로그루⁹⁾



〈사진 2〉 호로그루 전경 - 위성사진-(출처:구글어스)

호로그루는 임진강 북안의 현무암 수직단에 위에 구축된 삼각형의 강안 평지성이다. 전체 둘레는 401m 정도이며, 남벽은 161.9m, 북벽은 146m, 면적은 6,000㎡ 정도이다. 그 중 동벽은 길이 90m, 너비 40m, 높이 10m 정도로 평

지에 성벽을 쌓았다. 모두 4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고구려와 관련된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조사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차조사시 성벽은 동벽이 조사되었는데 기단부와 중심부는 점토와 마사토로 판축하였으며, 성벽 내외부는 석축으로 축조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석축 성벽 이전시기의 목책렬이 확인되었고, 이밖에 기와로 덮은 지상식 건물지를 비롯하여 석축 지하식 벽체 건물지 일부와 우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3차 조사에서도 지하식 벽체건물지 다층 구조와 2중의 목책렬로 확인되었다. 최근 실시된 4차 조사에서는

무등리 2보루(서울대학교박물관, 『연천 무등리 2보루 현장설명회자료』, 2010) 등이 있다.

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정밀지표조사보고서-』, 199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第1次 發掘調査報告書-』, 2001.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Ⅲ-第2次 發掘調査報告書-』, 2007.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제3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09.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제4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2011.

고구려 성벽에서 보여지는 수직 기둥 홈이 확인되었으며, 고구려 집수시설과 목재구조물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호로그루에서는 현재까지 남한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유적 중 가장 많은 양의 기와가 출토되었는데, 연화문와당 6점, 와당 부착흔이 남아 있는 수키와편 10여점과 함께 용마루에 사용하던 착고기와와 치미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호로그루는 지금까지 조사된 임진강유역 일대에 위치한 고구려 유적 중에서는 가장 위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도 문서의 사용을 짐작케 하는 토제 벼루나 6세기에서 7세기에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서체로 '相鼓'라는 명문을 새긴 악기(토제품), 절풍모양의 토제품 등과 함께 각종 탄화곡물(탄화미, 탄화조, 탄화콩·팥)과 동물뼈(개, 말, 소, 멧돼지, 사슴, 노루) 등이 출토되었다.

조사된 유구와 출토유물과 이 지역의 역사적 환경을 통해 볼 때 호로그루는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토루나 목책 등의 초보적인 형태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었다가, 고구려가 한강유역과 충청지역으로 남진이후 본격적인 석축성으로의 구축이 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호로그루는 비록 성의 규모는 작지만 이곳은 임진강의 감조구간 바로 위쪽에 위치하여 말을 타고 도강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임진강유역의 방어와 공격작전을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당포성¹⁰⁾

당포성은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8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진강 북안에 위치한 강안 평지성이다. 전체 둘레는 450m정도이며, 남벽과 북벽은 각각 200m, 동벽은 50m 정도이고, 면적은 13,734㎡이다. 임진강과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약 13m 높이의 긴 삼각형 단애 위에 축조되어 있는데, 지형을

1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파주군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199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9.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연천 당포성 1차 발굴조사보고서』, 2006.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경기도박물관, 『연천 당포성-시굴조사보고서』, 2008.

최대한 활용하여 축성하였다. 이 성곽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의 임진강유역 군사보호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와 토지박물관에 실시한 연천군 광역



〈사진 3〉 당포성 전경 - 위성사진 -(출처:구글어스)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동벽은 폭이 31m, 잔존높이 8m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벽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내벽은 점토와 사질점토를 성토, 다짐하여 축조하였는데 정교한

판축은 아니다. 내벽 점토 다짐층내에서는 경질무문토기편과 타날문토기편, 고구려토기편이 출토되어 고구려에 의해 초축 되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동벽 외벽은 현무암과 할석을 이용하여 석축으로 축조하였으며, 성벽에서 중국 집안지역과 평양의 대성산성 등의 고구려성곽에서 보이는 주동(柱洞, 또는 石洞)과 수직기둥 홈이 확인되었다. 한편 당포성 동벽은 2차례에 걸쳐 시기를 달리하여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즉, 1차 축조는 석축 성벽 안쪽의 토루벽이고, 2차 축조는 동벽 토루의 바깥쪽을 일정부분 수직으로 절개 후 석축성벽을 덧대어 쌓았다. 또한 성 내부에 전체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도 일부 시굴트렌치를 제외한 성 내부 전역에서 유구가 남아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구려 성벽 축조시기와 관련된 유구는 S0W4 시굴갱에서 노출된 방향의 수혈유구 뿐이고 나머지 유구는 모두 통일신라~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물은 고구려 토기편과 기와편을 비롯하여, 통일신라 토기편과 기와편, 고려~조선시대에 걸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으나, 이 가운데 고구려

토기나 기와의 출토량은 인접한 호로그루에 비해 빈약한 편이다. 인접한 호로그루에 비해 유물이나 유구의 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나 건축부재인 기와의 출토와 성벽의 견고성을 볼 때 이 성 역시 고구려에 의해 중요하게 활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은대리성¹¹⁾



〈사진 4〉 은대리성 전경 - 위성사진 -(출처:구글어스)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차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는데, 두 하천에 의해 침식되어 형성된 삼각형의 대지위에 축조된 강안 평지성이다. 외성의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30m, 둘레는 총 1,005m, 면

적은 26,479㎡이다. 내성의 둘레는 총 230m로 내부 면적은 2,770㎡이다. 지표 및 시·발굴조사에서 밝혀진 성곽의 평면은 삼각형 형태로 남벽과 일부 북벽은 한탄강과 차탄천이 형성한 자연단애를 이용하고 있으며, 동쪽 평탄지에는 토·석혼축으로 성벽을 축조하였다.

은대리성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이며, 축조방식은 지금까지 발굴된 토성이나 토석혼축성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방식으로 축조되어 주목된다. 즉, 성벽의 기저부를 조성하기 위해 구지표층 위에 점토+모래다짐을 사용

1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보고서』, 2004.

하였으며, 중앙부는 2열의 석렬을 쌓아 만들었다. 동벽 내벽부분에서는 성벽 축조시 기둥을 설치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2회 이상 성을 고쳐쌓은 흔적도 확인되었다. 동벽 내벽에서는 토성의 내면에 고이는 빗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溝가 조성되어 있다. 구의 규모는 동서 폭 2m정도이며, 깊이는 약 30cm정도이다. 이 시설은 동벽을 축조하면서 같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은대리성에서 출토된 유물은 대부분 토기편이고, 철제유물도 소량 출토되었다. 토기편은 대부분 고구려 토기이고, 호로고루나 당포성에서 흔히 확인되는 고구려 기와는 한점도 출토되지 않았다. 성곽의 지리적 위치, 성벽의 축조, 성 내부 출토 유물의 양상으로 판단해 볼 때 인접한 호로고루나 당포성에 비해 활용빈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3대성 주변의 자연환경과 군사지리적 특징

1) 자연환경

고구려 3대성이 자리하고 있는 임진강은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하여 도감포에서 한탄강과 합쳐진다. 여기서 다시 南西進하여 문산을 지나 한강과 합류되어 김포반도와 강화를 거쳐 서해로 흘러 들어간다. 임진강 유역은 태백산맥의 철령에서 분기된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사이에 형성된 한반도 중부지역의 동과 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자연통로인 추가령구조곡의 입구로서, 북쪽에는 마식령산맥이, 동쪽과 남쪽에는 광주산맥의 지맥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¹²⁾

12) 최근 국토연구원은 위성영상처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공간분석기법과 실제측량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지형을 입체적으로 재현한 산맥지도를 완성하였는데, 임진강북부의 마식령산맥은 ‘임진북예성남정맥’으로 광주산맥은 ‘한북정맥’으로 각각 명칭을 부여하였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고자 과거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임진강유역의 동쪽과 남쪽을 둘러싸고 있는 광주산맥은 가평, 포천 부근에서는 해발 1,000m 내외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3대성이 자리한 임진강유역의 北岸에는 해발 30~150m 내외의 구릉성 산지들이 종/횡격실로 불규칙하게 발달해 있다. 특히 3대성이 자리한 곳은 임진강과 한탄강의 현무암 단애 주변의 평탄지를 이용하여 축성되었으며, 해발 높이도 20~50m 내외를 보인다.¹³⁾ 그러나 임진강 南岸에는 파평산-감악산-금병산-노고산 등 500m 내외의 일련의 잔구성산지로 횡격실 능선으로 연결되어 방어(지연)진지 편성 및 주변 저지대를 감제, 관측할 수 있으며, 강 남쪽에서는 감악산(해발 675m)이 가장 높은 지대에 해당된다.

또한 임진강은 상류와 하류의 江幅이 심한편인데, 상류가 200~500m 인데 반해 하류는 2,800m에 이르는 곳도 있다. 수량 또한 풍부하고 유속도 3~4m로 빠른편이나 수직단애가 없는 지역에서는 유속이 1~2m로 느려지고 수심도 1m 내외이다.¹⁴⁾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군사작전 특히 도섭(도하)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임진강 하류는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어 도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류의 단애지역이 끝나는 곳에는 人馬가 쉽게 건널 수 있는 도섭지점이 발달해 있다.¹⁵⁾

2) 군사지리적 특징

성곽 축조는 외적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 성곽의 축조는 공격과 방어에

13) 가장 높은 지점인 동벽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호로그루는 해발 21m, 당포성은 해발 29m, 은대리성은 해발 55m의 높이를 보이고 있다.

14) 이제·강성문·김기훈, 「임진강 유역의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학예지』 3집, 1993, 319쪽.

15) 3대성이 위치하는 임진강과 한탄강에는 여러곳의 나루터와 여울들이 위치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56~59쪽) 여기서는 3대성 주변의 것만 나열하여 보면, 호로그루에 인접한곳에는 가여울, 고랑포나루와 두지나루, 당포성 인근에는 당포나루와 후연진, 썩은소여울, 도감포나루, 은대리성 인근에는 대탄진을 비롯하여, 마여울과 한여울 등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여울과 나루터 등은 군사작전간 도하나 도섭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을 것이다. 고구려 3대성의 축조도 당시 지리적 환경과 지형에 따른 기동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축조되어졌을 것으로 보인다.¹⁶⁾

전장이란 작전수행을 위한 지역, 또는 전투행위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東西古今을 통해서도 전장 환경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지형¹⁷⁾은 학술적으로 자연 및 인공지형물을 포함한 지표면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며, 무기나 장비, 보급품보다 더 전장상황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한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지형이 상대국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상대국을 방해하기 위하여 지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¹⁸⁾ 이러한 이유로 삼국이 영역 확장전을 벌이던 당시에 공격과 방어 기동로의 확보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더구나 고구려의 전략 전술은 공격시에는 速戰速決을 기본으로 하는 機動戰術¹⁹⁾이 주를 이루고

16) 당시 임진강유역에서 양국간의 정보전, 특히 지형정찰과 관련된 기록은 전무하다. 그러나 삼국사기 기록에 간간히 보이는 첩보전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공격작전이든, 방어작전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고구려의 정보전은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구려군의 남진 기동로 확보라는 점에서는 임진강유역의 지형지물, 특히 도하 및 도섭지점은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지형외에 당시의 기상환경도 당시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당시의 기상이 어떠한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후대기록에 기상정보의 중요성을 알게하는 예가 있는데, 1282년 8월 23일 원나라는 고려를 이긴 여세를 몰아 일본을 정벌하러 나섰으나, 서일본에서 큰 태풍이 내습, 병선이 거의 침몰해 정벌에 실패했다. 1274년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고려의 동구통감에 의하면 몽고군이 일본에 상륙했으나 호우와 심한 폭풍으로 철수하고 말았는데, 전성기에 대륙을 휩쓸었던 몽고의 힘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굴복하고 말았다. 만약 이때 기상 변화나 태풍의 내습을 조금이라도 사전에 알았다면 두 번에 걸친 일본 정벌계획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의 일본 역사는 크게 변화되었을 것이다.

18) 鄭明福, 「6·25 전쟁기 중공군 5월 공세에 대한 전투사적 고찰」, 『軍史』제 71호, 2009년 6월, 120~121쪽에서 재인용.

19) 고구려의 병법은 대체로 적군인 중국의 전통적인 분진합격(分陣合擊)에 대하여 청야전술(淸野戰術)과 이일대로(以逸待勞)를 기본으로 하는 수성전(守城戰)을 통해서 적의 역량을 말살시키는 소모전을 유도하는 것이었다.(白奇寅, 「고대 한국의 군사적 전통과 병학의 형성」, 『軍史』, 第74號, 14쪽) 그러나 4세기 중·후반부터 5세기대까지는 고구려의 전성기였다. 특히 임진강이남에서 확인된 고구려유적의 분포와 고고학적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고구려 중국 침입에 따른 수성전이 아닌 기동전을 펼쳤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있었으며, 방어시에는 淸野立保 戰術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기동로와 거점지역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것이다.

군사 기동로는 기본적으로 지형적인 조건에 크게 제약을 받는데, 앞서 자연환경에서 보여지듯이 3대성이 위치한 곳은 임진강을 중심으로 종/횡방향으로 교통로가 잘 발달된 지역이기는 하나 임진강의 지형적 특징으로 인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하(도섭)에 제한적이다. 특히 임진강과 한탄강을 극복할 수 있는 곳은 중하류의 여울들인데 이 가운데 남북교통로와 결합된 여울은 고랑포, 가여울, 썩은소여울이 있다. 특히 고랑포에는 호로탄이라고 불리는 여울이 있는데, 배를 타지않고 건널 수 있는 하류쪽으로부터 최초의 여울목이다.²⁰⁾ 이러한 지형적 특징과 성곽의 분포를 참고하여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군의 남진기동로에 대한 연구성과²¹⁾를 정리하면, 크게 4개의 기동로로 압축된다.

첫째, 개성방면에서 임진강 하구를 건너 교하-고양을 지나 서울로 가는 기동로로, 구체적으로 재령→신원→해주→개성→파주→한강에 이르는 기동로이다. 이 기동로는 임진강에서 한강유역까지 접근하는 최단거리이지만, 강폭이 넓어진 임진강 하구를 배로 도하해야 하므로 임진강이 국경하천의 역할을 하였던 삼국시대에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으며,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임진도)에 와서야 주로 이용되었다.(제1기동로)

둘째, 평양→황주→서흥→평산→금천→호로고루·당포성(임진강:고랑포, 가여울, 썩은소여울)→양주→한강유역을 이용한 기동로이다. 이 기동로 상에는 많은 수의 고구려 유적과 신라유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삼국시대 가장 활용도가 높았다.(제2기동로)

20)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2000, 56~59쪽.

21) 6세기중반 고구려가 백제와 신라의 반격으로 인해 다시 후퇴하게 될 때는 이 남진 기동로를 따라 후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방어시의 후퇴 기동로 또한 공격 기동로와 동일하다는 개념하에 남진 기동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남진시 네 개의 기동로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하여 재구성 하였다.

白種伍,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城郭의 分布와 性格」, 『경기도박물관 연보』 3, 2000, 79~81쪽.

徐榮一, 「고구려의 백제 공격로 고찰」, 『史學志』 38, 단국사학회, 2006, 45쪽.

셋째, 평양→대동→연산→수안→신계→토산→삭녕→연천→은대리성(한탄강:대단, 마여울, 한여울)→양주→한강유역을 이용한 기동로이다. 이 기동로는 현재의 3번국도에 해당되며 재령을 거치지 않고 임진강유역과 대동강유역을 직접 연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기동력을 극대화하는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한 교통로였다. 제2기동로와 같이 전쟁이 빈번하였던 삼국시대에는 활용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제3기동로)

넷째, 함흥이나 원산방면에서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형성된 길목을 내려와 김화-영평-포천을 지나 한강 북안에 이르는 기동로이다. 구체적으로 철원→포천→남양주→한강유역에 이르는 북동-남서방향의 기동로로 현재의 43번과 47번 도로에 해당된다. 이 기동로는 고구려보다는 말갈의 주요 남하경로로 추정되고 있다.(제4기동로)

이 가운데 임진·한탄강유역에는 제2기동로와 제3기동로가 해당되며, 고구려의 성곽 분포와 백제와 신라의 성곽 배치양상을 고려해 볼 때 이 두 기동로를 주로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2기동로와 제3기동로는 위치만 차이가 있을 뿐 결국 임진강과 한탄강을 건너 남진하는 과정에서 양주일대에서 합류되어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기동로이다. 또한 방어시 防者 입장에서 반드시 면밀한 방어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동로라 할 수 있다.

4. 임진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動向

현재까지의 역사기록에는 임진강유역 3대성의 축조시기와 목적 및 활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기한 문헌자료는 없다. 따라서 성곽의 축조목적과 사용시기 및 성격에 대해서는 성곽이 자리한 임진강유역에서 삼국의 역사적 환경 변화의 전개과정 속에서 그 편린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의 고고학적 조사성과를 통해 임진강유역에서의 각국의 동향을

보완하고자 한다.

『三國史記』 기록을 참고해 볼 때 고구려의 임진·한탄강유역의 확보는 크게 남진과 방어(후퇴) 및 전선고착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4세기 중·후반에서 5세기 중반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 이전에 고구려는 이미 낙랑과 대방을 축출하는 등 남진을 시도하였지만, 서북방에서의 前燕과의 전쟁으로 인해 백제와의 교전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때의 兩國의 戰線은 雉攘(白川)에서 水谷城(新溪)을 잇는 溟河(禮成江)선으로 백제도 靑木嶺(開城 부근)을 중심으로 관방을 설치하여 대치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²²⁾ 현재 임진강 이북의 고고학 자료는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이 시기의 양국간의 접촉을 보여주는 유적은 알 수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 황해도 황주에서 수집된 백제토기가 보고된 바 있으며, 이들 토기류의 연대는 4세기 중엽경으로 추정되고 있어²³⁾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기록과 고고자료를 통하여 볼 때 4세기 중엽에서 후반에 이르는 시기는 고구려가 남진을 시도하지만 백제의 효과적인 방어로 예성강 이남으로 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황주출토 백제토기의 예를 통하여 볼 때 상황은 더욱 고구려에게 불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⁴⁾ 그러나 【표 1】에서 보여지듯이 광개토왕이 즉위한 392년부터 백제의 한성이 함락되는 475년까지의 전투에서는 거의 모든 교전에서 고구려가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성이 함락되기 직전 양국 접경지역은 예성강 이남에서 한강 이북지방으로 추정되는데,²⁵⁾ 전투가 벌어진 곳은 예성강변의 水谷城(新溪), 靑木嶺(開城), 關彌

22) 朴性鳳, 「高句麗 發展의 方向性 問題-南進 發展論의 民族的 再吟味」, 『東國大學校 開校 80週年 紀念論叢』, 1987.

23) 崔鐘澤, 「黃州 出土 百濟土器例」, 『韓國上古史學報』제4호, 韓國上古史學會, 1990, 329~340쪽.

24) 4세기 후반, 즉, 광개토왕의 南征(396)이전 양국의 교전기사를 보면 390년 故國壤王代까지 10회에 걸친 전투기록에서 小獸林王 5년(375)의 예를 제외하고 모두 백제의 승리로 끝나고 있으며, 특히 백제 근초고왕 26년(371)의 평양성 전투에서는 고구려의 故國原王이 전사할 정도로 4세기 후반까지는 백제가 대고구려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25) 다만 이러한 내용에 배치되는 것이 있는데 광개토 비문 병신년(396) 기사에 보면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 討伐殘國 軍首至南 功取壹八城...遍其國城...(중략)..殘不服義 敢出迎

城²⁶⁾ 등이며, 대부분의 전투에서 고구려가 승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4세기 말에서 5세기 중엽에는 황해도와 예성강유역, 임진강 북쪽은 고구려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 당시 고구려의 남진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인시켜 주는 자료로 호로고루 목책단계 유물과 은대리성 출토 토기이다.²⁸⁾ 호로고루 목책열과 토광유

戰 王威赫怒 渡阿利水 遣刺迫城 殘兵歸穴 就便圍城 而殘主困逼 獻出 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從今以後 永爲奴客... 於是得 五十八城 村七百 將殘王弟 并大臣十人 旋師還都...(영락 6년 병신년에 왕이 친히 수군을 인솔하여 백잔국을 토벌하였다. 호태왕의 선봉대가 백잔국의 남쪽에 도착하여 일팔성에서 꺾기국 성까지 여러 성을 공격 하여 탈취하였다. 그러나 백잔은 정의에 불복하여 감히 군사를 출영하여 전투를 벌였다. 호태왕은 위엄을 지니고 이에 분노하여 아리수를 건너서 부대를 보내어 성을 압박하니 백잔병이 소굴로 돌아갔으나 즉시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자 백잔주는 곤핍하게 되어 남녀 천명과 세포 천필을 바치면서 이제부터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 위 비문의 핵심은 광개토왕이 한강을 건너 위례성을 점령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광개토왕의 일시적 군사적 진출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 26) 관미성의 위치비정에 대해서는 ① 임진강하구설, ② 강화 연안설, ③ 예성강연안설 등의 견해가 있다.
- 27)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서경문화사, 1998, 213쪽. 그러나 고구려의 지속적인 승리와는 달리 백제의 대고구려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영락 6년 이후에도 백제는 계속 고구려에 대한 구토회복에 대한 전투를 전개하고자 예성강 유역의 실지회복을 위한 조치도 있었다.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장수왕 57년(469)과 문자왕 11년(502), 12년(503), 등에 보이는 雉攘城, 水谷城 등은 4세기 중반까지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임진강과 예성강 사이의 지명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헌사료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고구려와 백제의 접경지대인 임진강유역 주변에서는 양국의 소규모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8) 은대리성 출토 유물 또한 태토나 표면색조, 구연형태 및 문양요소 등에서 대략 5세기 후반대에 해당된다.(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토기의 성격』,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22쪽).
- 한편, 임진강 이남에 위치하는 파주 육계토성 내 주월리유적에서 사이장경유류와 구형호류 2개기종 5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가운데 구형호류는 목이 외반되고 동체부가 길고 어깨가 발달한 C형 2점과 편구형의 동체부를 가진 B형 1점이 출토되었다. 이중 C형 구연 1점은 어깨에 횡침선을 돌리고 그 아래에 3조의 重弧文을 시문하였는데, 문양이나 형태상의 특징이 357년에 축조된 安岳 3號墳 출토 구형호류와 유사하여 대략 4세기 후반경으로 편년이 가능하다.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토기의 성격』,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16~117쪽) 이 유적 출토 고구려토기는 출토맥락이 불분명하나 남한지역 고구려토기 가운데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되는 유물이다. 주월리유적 출토 고구려토기의 편년에 대해서는 4세기 전반설(박순발, 『漢城期 백제연구와 考古資料』, 『漢城百濟 考古學資料集 上』, 기전문화재단연구원, 2005)과 4세기 후반설(최종택, 『高句麗土器의 編年에 대하여』, 『고구려고고학의 제문제』, 제27회 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2003)이 있다. 이 지역의 역사적 맥락과 고고자료가 相衝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당시

구에서 출토된 유물중 직구단경호의 경우 어깨 부분에 점열문과 파상문이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토기는 몽촌토성,²⁹⁾ 남성골산성,³⁰⁾ 용인 보정분,³¹⁾ 용인 마북동유적,³²⁾ 화성 청계리고분³³⁾ 등에서 확인되는 토기의 문양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위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의 편년은 대체적으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비정되어진다.³⁴⁾ 이후 장수왕 67년(475)에는 한강 이남에 위치하였던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이 남 지역마저도 고구려 수중에 들어가게 되어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후 몽촌토성을 남진의 거점으로 삼아 금강유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기록과 고고학 자료를 참고할 때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은 완전히 고구려의 영역에 포함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고구려의 방어(후퇴)와 전선고착 단계로 대략 6세기 중반부터 고구려가 멸망하는 7세기 후반까지이다. 우수한 騎步와 武器를 중심으로 파죽지세로 충청도지역까지 내려갔던 고구려는 551년 국력이 회복된 백제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으로 후퇴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구려와 백제의 경계선은 금강에서 한강으로 북상하게 된다. 그러나 2년 뒤인 553년 羅濟同盟을 破한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며,³⁵⁾ 임진강 유역까지 후퇴하게 된다.

이 지역이 간접적으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29) 최종택,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 12, 高麗史學會, 2002.

30) 忠北大學校博物館, 『清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5.

31) 白種伍, 「南韓內 高句麗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第35輯, 高句麗渤海學會, 2009.

32) 최종택, 「南韓地域 高句麗古墳의 構造特徵과 歷史의 意味」, 『韓國考古學報』 第81輯, 韓國考古學會, 2011, 167쪽.

33) 안신원, 「최근 한강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계고분」, 『高句麗渤海研究』 36, 高句麗渤海學會. 양시은, 「남한에서 확인되는 고구려의 시·공간적 정체성」, 『고고학』 제10권 제2호, 서울경기고고학회, 2011.

34)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III-第2次發掘調査報告書』, 304쪽.

35) 고구려의 한강유역 상실의 원인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혼란과 북으로 새로 興起한 돌궐과의 대치로 한강유역에 관심을 집중할 겨를이 없었다는 견해(盧泰敦, 「高句麗 漢江流域 喪失 原因에 대하여」, 『韓國史研究』, 13, 1976, 29~57쪽)와 고구려의 지배는 몇몇 중요한 거점을 확보하고 중요 교통로를 통해 한반도 중부지역을 경영하는 군사적 거점 중심의 지배방식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군사적 거점 지배방식이 갖는 불안정성이 한강유역을 상실한 요인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임기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영역범위」,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65쪽).

【표 1】 삼국사기에 보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기사

순번	연 도	교전 장소	교전국		결 과		동원 병력	출전
			공자	방자	승전국	교전결과		
1	광개토왕 1년(392) 7월	석현성 등 10성	고구려	백제	고구려	석현성 등 10성 함락	兵 4萬	백제본기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1년(392) 10월	관미성	고구려	백제	고구려	관미성 함락	?	
2	아신왕 2년 (393) 8월	관미성	백제	고구려	고구려	백제군 격퇴	百濟 軍士 1萬	백제본기
3	아신왕 3년 (394) 7월	수곡성	백제	고구려	고구려	고구려 방어 성공 高句麗 國南 七城 築造	高句麗 精兵 5千	백제본기
4	광개토왕 4년(395) 8월	湏水	백제	고구려	고구려	백제군 8천여 포로	?	고구려본기
5	아신왕 4년 (395) 8월					백제군 8천여 전사		백제본기
6	광개토왕 5년(396)	고구려 영역	고구려	백제	고구려	58城 700村 획득	?	광개토태왕릉비
7	장수왕 57년 (469) 2월	高句麗 남쪽 변방	백제	고구려	?	?	?	고구려본기
8	개로왕 15년 (469) 8월							백제본기
9	장수왕 63년 (475) 9월	百濟 漢城	고구려	백제	고구려	漢城 陷落	高句麗 兵 3萬	고구려본기
10	개로왕 21년 (475) 9월							백제본기

※ 본고의 시간적 범위는 4세기말~7세기대이므로 광개토왕 이전기사와 한성 함락 이후 기사는 제외하였음.

신라가 한강유역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한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와 벌인 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지명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표 2】에서 보여지듯 당시 양국 사이에 여러차례 공방전을 치렀던 것으로 전하고 있으며, 소규모 국지전에 대한 기록의 누락 가능성을 감안하면, 전쟁은 더욱 빈번하였을 것이다. 이 시기 신라의

한강유역 점유와 북진을 알려주는 한강이북지역의 유적으로 파주 성동리고 분군³⁶⁾을 비롯하여 파주 칠중성,³⁷⁾ 양주 대모산성,³⁸⁾ 포천 반월산성,³⁹⁾ 포천 성동리유적⁴⁰⁾ 등 대부분 관방유적이며, 일부 고분과 생활유적도 확인된다.⁴¹⁾ 이들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대체로 6세기 중·후반, 즉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했을 당시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⁴²⁾

이상 삼국사기 본기기록과 비문 및 기존 연구성과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임진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4세기말 고구려 광개토왕의 강력한 남진정책으로 고구려는 예성강이남, 임진강유역까지 진출하게 되고, 475년 장수왕대에 백제의 한성을 함락시키고 충청도지역까지 진출하게 된다. 이후 다시 6세기 중반 백제와 신라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하게 되며, 이 시점부터 고구려와 신라는 한강이북과 임진강 이남을 완충지대로 하여, 고구려가 멸망할 때 까지 치열한 영역다툼을 벌이게 된다.

36) 경희대학교 고고미술사연구소 외,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 1992.

37)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칠중성 지표조사보고서』, 2001.

38) 문화재연구소·한림대학교박물관, 『양주 대모산성 발굴조사보고서』, 1990.

3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 2004.

40) 경기도박물관, 『抱川 城東里 마을遺蹟』, 1999.

41) 이외에 신라 북진기에 축조되어진 성곽으로 감악산보루(權純珍, 「紺岳山堡壘의 性格」, 『申虎雄教授 停年 紀念論叢』, 2008)을 비롯하여 연천 수철성, 초성리산성, 포천 고소성, 주원리산성, 양주 천보산 3·5보루, 의정부 사패산보루, 의정부 부용산보루, 남양주 국사봉보루 등도 6세기 중·후반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이시기 이곳에 신라의 진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權純珍, 「京畿地域 新羅 北進期城郭에 關한 一考察」, 『新羅史學報』 9輯, 2007).

42) 강진주는 한강유역 관방유적과 고분유적에서 출토된 신라토기 가운데 단각고배와 뚜껑, 부가구연대부장경호 등을 분석하였으며, 대부분의 토기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을 알려주는 6세기 중후반의 유물이며, 7세기대의 유물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강진주, 「한강유역 신라토기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표 2】 삼국사기에 보이는 신라와 고구려 전쟁기사

순번	연 도	장 소	교전국		결 과		동원 병력	출 전
			공자	방자	승전국	교전결과		
1	진평왕 25년 (603) 8월	북한산성	고구려	신라	신라	고구려군 격퇴 북한산성 방어	1만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2	진평왕 30년 (608) 2월	북경	고구려	신라	고구려	8천명 붙잡혀 감	미상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3	진평왕 30년 (608)4월	우명산성	고구려	신라	고구려	성을 빼앗김	미상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4	진평왕 51년 (629)8월	낭비성	신라	고구려	신라	3천여명을 참살하고 성을 함락시킴	미상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5	선덕여왕 7년 (638)년 10월	북변 칠중성	고구려	신라	고구려	격퇴 산곡으로 도망	미상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6	선덕여왕 7년 (638) 11월	칠중성	신라	고구려	신라	많은 무리 참획		신라본기
7	선덕여왕 11년 (642) 겨울	고구려 남계	신라	고구려	미상	김춘추 돌려보냄	1만	신라본기
8	무열왕 2년 (655) 정월	북쪽 변경	고구려	신라	고구려	33성을 빼앗김	미상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5. 3대성의 성격

1) 공격시 3대성의 운용

4세기말 광개토왕의 강력한 남진정책으로 인해 고구려는 예성강유역에서 백제의 방어전선을 돌파하여 임진강유역까지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광개토왕때 임진강유역의 진출은 일시적인 군사

작전에 의한 것이었고, 본격적인 임진강유역을 영역화하기 시작한 것은 장수왕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성강 전선을 넘은 고구려의 전략적 목표는 한강유역에 위치한 백제의 수도 공략이었다. 그러나 예성강을 남하한 고구려군은 또 하나의 자연장애물인 임진강을 건너야만 한다. 이 강을 확보해야지만 공격작전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고, 백제의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기 위한 최단코스의 기동로를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의 공격은 騎步 위주의 속전속결이었다. 단기간내에 전투상황을 종료하려면 중요 기동로의 확보는 필수이다.

이 가운데 제2기동로 상의 좌우측에 각각 호로그루와 당포성, 제3기동로 상에는 은대리성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먼저 호로그루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雨期를 제외하면, 임진강 중·상류 가운데 人馬가 배를 타지 않고 渡涉(渡河)⁴³⁾하여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이다. 도하에 비해 도섭은 장비의 도움없이 비교적 손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이점이 있다. 騎步위주의 속전속결로 한강유역까지 진격해야 하는 고구려군의 입장에서는 당포성이나 은대리성에 비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기동로였을 것이다. 또한 도섭에 성공하여 남쪽 대안을 확보하고,⁴⁴⁾ 신속히 양주일대를 거쳐 한강유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호로그루가 고구려군의 남하시 도섭의 주요 루트였다는 것은 발굴조사된 고고학자료에서도 살펴지는데, 먼저 호로그루에서는 고구려가 임진강유역으로 최초 진출했을때 구축되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책열이 2차 발굴조사 시 동벽의 안쪽에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출토된 토기 또한 목책단계와 석축단계의 두 시기에 걸쳐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목책단계의 유물을 살펴보면, 구연이 수직으로 길게 외반하고 구단부가 납작

43) 渡河과 渡涉의 의미는 강을 건너다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나, 실제 도하는 강 폭과 수심에 강을 건너기 위해 시간과 공력을 들여야 하지만, 도섭은 강폭과는 관계없이 수심이 얕은 지점을 발로 건너는 것으로 실제 시행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44) 호로그루의 남쪽 대안에도 이잔미성이 위치하고 있는데, 성 내부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수습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坡州 二殘眉城 지표조사보고서』, 2005).

하게 처리된 자배기류와 동체부에 점열문과 파상문이 음각된 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대체적으로 5세기후반에 해당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제 양상으로 볼 때 호로그루가 위치한 제2기동로는 당포성이나 은대리성에 비해 도하장비 없이 일시에 많은 병력과 장비가 이동할 수 있는 고구려군의 주 공격 기동로로 이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근거로는 이 시기 임진강유역이 고구려군에 의해 점유되었지만, 최전방인 관계로 백제와의 전투와 견제가 심해 안정적인 진지 구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급조된 방어진지를 구축한 뒤, 도하작전시 필요한 指揮所가 설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섭(도하)작전간 지휘통제와 지휘소방호, 및 군수품 저장⁴⁶⁾를 목적으로 이곳에 우선적으로 진지구축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나타난 것이 목책형태의 구조물이 아닌가 생각된다.⁴⁷⁾

한편 당포성이 자리한 곳은 과거 북쪽에서 당포성을 거쳐 적성-양주-서울로 가는 길목인 마전삼거리가 위치해 있어 당포성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두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이 성곽의 축조 및 운영시기를 알려줄 특징적인 유물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성내부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에서도 인접한 호로그루에 비해 고구려 유물이 극히 빈약하게 출토되었으며,

4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漣川 瓠蘆古壘 III-第2次發掘調査報告書』, 2007, 305~310쪽.
 46) 고구려와 임진강이남, 한강이남, 멀리는 충청도지역까지 공격하여감으로 인한 군수물자의 보급로 신장이 구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 수도인 평양에서부터 보급품을 받는 것보다 이보다 남쪽지역에 보급품 관련 시설을 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 볼 때 호로그루는 보급을 위한 군수기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역할을 반영하듯 발굴조사결과 성내부에서 창고형태의 건물지들이 조사되었다.
 47) 석축이전 목책이나 토루단계의 성벽이 먼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증거는 최근 연천 무등리보루와 한강이북에서 발굴조사된 아차산보루군, 충청도 지역의 청원 남성골유적, 대전 월평동 유적이 있다. 이 유적들은 모두 석축 이전에 목책을 먼저 설치하였던 것이 발굴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는 석축은 목책이나 토루에 비해 공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급박한 상황에서의 진지구축에는 목책(목익), 토루가 있는데, 당시 긴급한 임진강유역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목책(목익)이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주지하듯 돌을 이용하여 축성하는 것은 흙을 이용하여 쌓는 것보다 공력이 많이 들어간다. 따라서 호로그루나 당포성의 석축성벽은 고구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하고 영역이 안정화 되었을 때 개축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유구도 통일신라~고려시대 유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동벽에 대한 조사에서 이 성의 축조시기의 일면을 알 수 있는데, 동벽은 최초 조잡한 토루 형태의 방어진지로 구축되었다가 일정시점, 즉 고구려가 한강이 남으로 완전히 진출한 뒤 취약한 동쪽에 대한 방어력 보강을 위해 외벽만 석축으로 보강한 것으로 보여진다.⁴⁸⁾

이러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당포성은 지리 및 지형적 위치상 호로그루와 동일⁴⁹⁾하나 기능면에서 호로그루가 남쪽으로는 공격작전간 도섭(도하)작전간 엄호 및 지휘소방호와 군수물자 창고 역할을 하였던 반면 당포성은 주 공격기동로인 호로그루에 인접한 보조 기동로로 활용하여 유사시 주 공격 기동로인 호로그루 기동로가 頓挫되었을 것에 대비한 예비기동로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제2기동로상에 배치되어 방어를 하던 백제군의 측방에 대한 공격차단 및 우회공격로 확보의 기능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물도 호로그루보다는 소량이지만 기와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성 내부에 瓦家 건물이 존재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건물지들은 호로그루와 유사한 기능, 즉 병참기지의 역할도 일부 병행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은대리성은 3대성 가운데 가장 동쪽에 있으며, 3기동로상에 위치한다. 이 기동로는 고구려군이 공격시에 남동쪽으로 우회한 지점에 자리한다. 성벽의 축조기법면에서 은대리성은 정교한 축성방법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 동시기 백제토성과 비교하면 토루의 조성방식이 조잡하고 공력도 적게 들었다. 석축 역시 활석을 막쌓기 하는 등 동시기 고구려의 성벽 축조

48) 호로그루는 내부 점토와 마사토로 판축 후 내외벽을 석축으로 축조하였다. 그러나 당포성은 층위상으로 볼 때 호로그루와 같이 동시에 축조하지 않고, 1차적으로 점토를 이용하여 완만한 토루를 축조한 후 후대에 다시 이 토루의 동쪽을 1/3정도 절개하여 석축성벽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

49) 호로그루를 이용하여 도하하면 감악산 서로를, 당포성을 이용하면 감악산 동로를 이용하여 양주분지 일대로 진출할 수 있다. 그러나 감악산 서로에 비해 동로가 감악산과 마차산의 협곡지대를 통과해야 하는 隘路지형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속한 기동전을 펼치는 공자에게는 불리한 지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쪽의 대안을 확보후 애로지형에 대한 전부확보를 목적으로 아미성(경기도박물관, 『아미성·수철성 지표조사보고서』, 2008)을 축조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을 고려할 때 빠른시간에 급조한 느낌이다.⁵⁰⁾ 또한 성곽을 장기간 사용하면 호로고루와 같이 내부에 건물지 등의 다량의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어야 하나 그런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은대리성의 사용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내부에 대한 조사결과 고구려 관련 유구나 유물은 동벽에 인접한 배수로를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수로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는 남한지역에서 출토된 고구려 유물 가운데 주월리 유적 출토품을 제외하고 가장 이른시기인 5세기 후반대 유물로 보인다.⁵¹⁾ 이러한 유물의 양상은 은대리성이 4세기 말에서 5세기에 진행된 고구려의 남진시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인접한 호로고루와 당포성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고구려 기와가 전혀 출토되지 않는 점이다. 이는 성내부에 기와 건물이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이성에 주둔군이 항시 상주하였던 성곽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²⁾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몇가지 특징을 고려해 볼 때 공격작전시에 은대리성은 장기적인 주둔지 형태와 군수물자 보급창고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며, 임진강 이남의 백제에 대해 주공방향인 호로고루에서 한탄강을 도섭(도하)하여 양주, 서울방면으로 공격하려는 고구려군의 예비 기동로 및 예비대의 임시 집결지로의 기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고구려가 공격작전시 은대리성보다는 남동쪽에 자리한 전곡리토성을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발굴조사가 일부에 그쳐 추론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하게하는 근거로 첫째, 전곡리토성에 대한 시굴조사에서도 고구려시기 목책과 관련유물

50) 서영일, 「연천 은대리성의 축조공법과 성격 고찰」, 『문화사학』 31호, 한국문화사학회, 2009, 49~55쪽.

51) 최종택, 「남한지역 고구려토기의 성격」, 『경기도의 고구려 문화유산』, 경기도박물관, 2007, 141~151쪽.

52) 조선시대 이전 은대리성 주변 지역에 큰 마을이 존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은대리성의 입지는 행정적인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 성이 입지하게 된 것은 순수한 군사적 목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서영일, 「연천 은대리성의 축조공법과 성격 고찰」, 『文化史學』 31호, 韓國文化 史學會, 2009, 43쪽)

들이 출토되었으며,⁵³⁾ 둘째, 입지면에서 은대리성보다는 한탄강을 도섭/도하하기에 지형적 여건이 더 양호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강을 건너면 바로 지금의 3번국도와 연결되어 곧장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이후 임진강유역을 신속히 건넌 고구려가 한강 이남과 금강유역까지 진출했을 때 임진강유역의 3대성은 비로소 고구려의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었다. 따라서 임진강 북안의 성곽들은 방어력 보강과 군수물자의 보호 및 영역화된 주변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3대성 또한 목적에 맞게 수·개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호로고루와 당포성은 각각 목책과 토루에서 석축으로 개축되었을 것이다. 특히 호로고루는 3차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성 내부에서는 남한지역에서 확인된 다수의 고구려 유적 가운데 가장 다양하고 많은 양의 토기와 기와(와당)가 출토되었는데, 이들 토기와 기와들은 대부분 5~6세기에 해당되고 있다⁵⁵⁾. 또한 쌀과 조, 콩이 비축된 군량미 창고를 비롯하여 한문에 능통한 識者層의 존재를 의미하는 각종의 명문토기와 벼루, 호자와 저울추, 관모형토제품, 벽돌 등이 출토되었다. 이로 볼 때 호로고루는 임진강 일대의 보루를 관장하는 사령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기능도 겸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호로고루의 경우 병참기지⁵⁶⁾와 방어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위치상 점령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임진강 이남으로

53)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전국 선사박물관 건립부지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2008.

서울대학교박물관·연천군선사문화관리사업소, 『연천 고구려성곽(대전리산성·전곡리토성)지도위원회 자료집』, 2010년.

54) 전면발굴이 아닌 부분발굴이라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전곡리 목책은 6세기 중후반 고구려가 임진강유역으로 후퇴시에 은대리성을 대신하여 일정정도 한탄강 도섭지점에 대한 방어기능을 한 후 신라의 공격이 거세지자 후방의 무등리보루로 방어기능이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5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 호로고루 III-제 2차 발굴조사보고서-』, 2007, 304~310쪽.

56) 호로고루와 당포성을 군수보급기지로 보는 또 하나의 근거는 호로고루와 당포성의 인접한 곳에 고랑포나루와 도감포 나루가 있다. 여기서 배를 타면 임진강 하류에서 서해마다의 한강으로 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수상운송로를 이용한다면 남진한 주력부대에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면에서 육상 이동로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진 후 바로 성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경사진 곳을 성토하고 성 내부를 평탄하게 조성하였으며, 석축성과 토성의 장점을 결합한 고구려 특유의 성벽과 성내부에 기와건물을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⁵⁷⁾

이를 정리하면, 고구려 3대성은 주공격방향과 보조공격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구려군의 速戰速決戰을 가장 신속히 수행할 수 있는 主攻방향의 기동로는 호로고루가 속한 제2기동로이며, 이에 반해 당포성과 은대리성은 주기동로의 측방위협에 대비하며, 유사시 보조공격 기동로로 이용되었을 것이다.⁵⁸⁾ 따라서 공력이 많이 드는 정연한 석축성벽이 아닌 목책, 토루, 토·석혼축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구려가 임진강을 건너 한강유역과 충청도지역까지 남진⁵⁹⁾했을 때는 호로고루는 완전히 영역화된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행정치소성의 기능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간 주력부대에게 필요한 군수물자 보관 및 지원에 따른 창고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⁶⁰⁾ 당포성 또한 그 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으로 인해 최초 점령시 토루를 축조 후 보조공격방향의 역할을 수행하고,

57) 연천 강내리유적 고구려 석실본에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로는 무기류가 없고, 고구려고분에서는 드물게 출토되는 금제구슬, 은제팔찌, 유리구슬 등 장신구류가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전사집단이기 보다는 귀족집단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려문화재연구원, 『군남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문화재 시·발굴조사(1지점) 현장설명회 자료』, 2010) 유물들의 출토양상을 고려해 볼 때 고구려가 이 지역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볼 수 있겠다.

58) 앞장의 자연환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강 북안에 비해 남안은 500m 내외의 고지가 발달해 있고, 그 주변으로 황격실형태의 잔구성 산지의 발달로 인해 방어진지 및 주변저지대를 감계관측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적 위치이다. 특히 고구려군의 주 공격 루트인 제2기동로와 제3기동로는 애로지형으로 되어 있으며, 이 지형적 잇점을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구려는 적을 기만하기 위해 주공격방향과 보조공격방향을 나누어 백제의 방어를 분산시키는 전술을 실시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59) 이러한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가능한 것은 이 지역이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영역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성곽의 축조방식이 성곽마다 다른데에는 정병제에 따른 축조(지역)집단의 相異함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60) 영역 개념의 인식에 있어서 행정 구획화 시킨 곳을 행정지역(civil zone), 행정 구획화 시키지 못한 군사 주둔의 공간은 군사지역(military zone)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사지역이 안정을 기한 연후에는 행정 지역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方東仁, 『韓國의 國境劃定研究』, 一潮閣, 1997, 42쪽).

고구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했을 때에는 인접한 도감포 나루를 통해 군수 물자를 보관 및 이동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추정된다. 은대리성은 고구려 남진시 예비대의 임시주둔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한강유역으로 진출시에는 용도 폐기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2) 방어시 3대성의 운용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한강 하류지역을 고구려로부터 되찾은 553년 전후로 고구려는 임진강유역까지 후퇴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는 한강유역과 충청지역의 금강유역까지 세력을 확장한 후 후방지역에 해당하는 임진강유역 3대성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한편, 필요한 지점에 새로운 성들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3대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이 이른바 국경하천의 북안에 축조되어 고구려의 최후방어선을 형성하였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전장 및 전투상황을 가정하면 다분히 도식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물론 방어하는 입장에서 3대성이 남쪽의 수직단애를 적절히 이용하여 방어진지를 편성한다는 면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평지성은 높은 곳에서 성내부를 훤히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어상 근본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임진강유역 3대성이 방어적 기능과 함께 거점형태의 성격이 강하다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의문을 품고 고구려의 방어시 3대성의 활용에 기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3대성이 자리한 방어상의 입지와 성내부의 면적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3대성은 모두 강북안의 평지에 축조되었다.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성내부 가장 높은 곳이 20~30m 내외이며, 은대리성도 60m 안팎의 고도를 보인다. 반면 강의 대안인 남쪽 구릉의 높이는 해발 50m 내외이며, 주변의 고지는 100m가 넘는 곳도 있다. 관측할 수 있는 시계가 제한됨을 감안하더라도 남쪽에서 북쪽에 위치한 성 내부의 움직임은 쉽게

과약될 수 있으며, 더욱이 望臺나 이동식 관측소인 巢車를 설치하면 더욱 더 시계는 양호해진다. 성내부가 적에게 노출된다는 것은 방어상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러한 것은 결국 공성무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삼국시대에 사용된 원거리 무기인 대형 弩와 抛車는 성벽과 내부 건물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 또한 쇠뇌 등은 접근이 비교적 쉬워 근접하여 성내부로 사격을 할 수 있으며, 弓手들도 방어하는 성과 동일하거나 조금 높은 위치에서 성내로 사격이 가능하다.⁶¹⁾ 따라서 성안의 병사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다.⁶²⁾ 특히 은대리성을 제외한 당포성과 호로그루는 성곽의 규모가 작고 면적이 협소하여 성 내부에 대한 공격시에 피난 장소가 마땅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들을 가지고 攻城한다면 성내부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입장에서 이런 지형적 불리함을 고려했다면 3대성이 아닌 이보다 유리한 지형이나 성곽에서 방어거점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은대리성의 입지를 살펴보면 북쪽과 동쪽은 높이 15m 내외의 주상절리가 가로막고, 남쪽과 서쪽은 하천으로 막혀서 섬처럼 고립된 지형으로 유사시 退路가 차단된 지형이다. 따라서 위치상 방어성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바로 인접하여 여울목이나 나루터가 있는데 비해 은대리성의 남동쪽에 있는 전곡리 토성 부근에 도섭이나 도하하기 유리한 여울목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지형을 이용한 방어의 기능이 강하였다면 이곳을 방어진지로 고려하여야 했을 것이다.

한편 문헌과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고구려가 임진강 이남에 재진출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 즉, 6세기 후반부터 한강유역에서 신라의

61) 호로그루는 강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직선거리로 400m이며, 당포성과 은대리성 250m 내외이다.

62) 이 시기보다 후대 기록이지만 고구려장군 뇌음신이 말갈장군 생해와 연합하여 술천성을 공격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옮기어 북한산성을 공격하여 포차를 벌여놓고 돌을 날리니 그것에 맞은 건물은 곧 무너졌다. (『三國史記』新羅本紀, 太宗武烈王 8年條)는 기록이 보이며, 조선왕조실록에 신라때부터 단지 포석(투석기)의 제조만 있고, 대대로 화약의 법이 없었는데, (세조대왕실록 3원 2년 3월 28일 양성지의 상소문 중) 라는 기록으로 볼 때 그 실체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무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州(또는 停)의 위치변동⁶³⁾과 온달전⁶⁴⁾의 기록으로 보아 6세기 중후반부터 7세기 초까지 한강이북 임진/한탄강이남 지역에서 양국의 영역변동이 잦았던 점,⁶⁵⁾ 한강이북지역에 있는 산성을 신라가 초축하거나 수·개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물상을 고려해 볼 때 대부분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라는 점이다.⁶⁶⁾ 이러한 몇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6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는 임진강을 국경으로 하는 방어가 아니라 한강이북, 양주일대를 완충지대로 상호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⁶⁷⁾ 더불어 양주 분지 일원의 보루를 포함하는 삼국시대 성곽에서는 최초지배국가인 백제의 유물을 포함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유물이 혼재되어 수습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 이 지역이 영역의 向方이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황이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⁶⁸⁾

63) 삼국사기 기록에 보이는 州治의 變遷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 도	州의 變遷
진흥왕 14년(553)	新州 設置
진흥왕 17년(556)	比列忽州 設置
진흥왕 18년(557)	新州廢止→北漢山州 設置
진흥왕 29년(568)	北漢山州 廢止→南川州 設置, 比列忽州 廢止→達忽州 設置
진평왕 26년(604)	南川州 廢止→北漢山州 設置

64) 『三國史記』, 列傳, 溫達傳.

65) 徐榮一, 「京畿北部地域 高句麗 堡壘考察」, 『文化史學』 17號, 2002, 70~74쪽.

66) 강진주, 「한강유역 신라토기에 대한 고찰」,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서영일, 「산성 분포로 본 신라의 한강유역 방어체계」, 『고고학』제 9권 제1호, 중부고고학회, 2010, 127~132쪽.

67) 서영일, 「5世紀 高句麗 東南境 考察」, 『史學志』 第24輯, 2001, 31~35쪽.

보루는 일반적으로 둘레 300m 이하의 소규모 성곽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규모 때문에 장기간 농성전에는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보루들은 아차산보루군을 비롯하여 북으로 천보산, 양주일원의 도락산, 불곡산, 태봉산보루, 적성의 아미성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북으로 올라오는 교통로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작고 주변의 평야지대와 격리되어 있어 적은 병력으로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복진하는 적의 공격을 감시하거나 경보 전파 및 축차적인 저지 등의 소극적 방어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68) 7세기대에 임진강유역의 전투현황을 보여주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善德女王 7년(638)에 고구려의 군대가 칠중성을 침범하자, 신라 장수 關川이 격퇴하였으며(『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宣德王 7年 10月·11月,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營留王 21年 10月).

또한 553년 이후 한강유역에서의 신라와 고구려 간 영역문제는 진흥왕대의 州의 置廢의 변동과 연관지어 추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견해가 제시되었다. 즉, 진흥왕은 551년 남한강과 북한강 중상류의 10군을 공취한 후 556년에는 비열홀주를 설치하였다. 비열홀주는 현재 함경도 안변으로 비정된다. 『大東輿地圖』를 참고하면, 한강유역에서 비열홀주의 치소인 안변으로 가는 경로는 두가지 정도로 파악된다. 첫째는 한강-양주-포천-영평-김화-회양-철령을 넘어가는 길과 둘째, 한강-양주-연천-철원-평강-분수령을 넘어 안변에 도달하는 것이다.⁶⁹⁾ 이 가운데, 특히 두 번째 경로와 그 주변으로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방유적이 비교적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고구려와 신라의 대치선이 임진강 중·하류유역이 아닌 현재의 양주-연천-철원-평강-분수령-안변에 이르는 선에서 고구려와 대치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⁷⁰⁾ 이러한 견해는 결국 고구려가 방어 시에는 임진강유역이 주요 격전지가 아닌 그보다 남쪽 현재, 즉 한강의 북쪽과 양주분지, 포천분지, 철원 일원이 주요 접전지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⁷¹⁾ 이밖에 임진강 유역에서 고구려의 전선고착의 원인에 대해

② 무열왕 7년(660년)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하여 성을 지키고 있던 신라의 장수 필부가 전사하였다.(『三國史記』 卷 5, 新羅本紀, 武烈王 7年 11月, 『三國史記』 卷 47, 匹夫傳)

③ 당 咸亨 4년(673)에 호로하에서 고구려 부흥군이 당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배하고 신라로 도망하였다.(『三國史記』 卷 22, 高句麗本紀, 寶藏王 8 下, 咸亨 4年).

위 전투기록 외에 김유신의 보급로의 기록도 보이는데, 문무왕 2년(662) 정월 김유신은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원정은 당군의 군량 공급을 위해 수레 2000여 량에 식량을 싣고 평양으로 향했다. 김유신 부대의 출발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월 18일에 風樹村에 묵고 23일에는 칠중하를 지나 산양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三國史記』 卷 6, 新羅本紀, 文武王 2年 正月, 『三國史記』 卷42, 金庾信傳 中).

69) 장창은, 「新羅 眞興王代의 北方進出과 對高句麗 領域向方」, 제112회 학술발표회 발표문, 신라사학회, 2012.

70)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간에 치열한 전투기록을 알려주는 자료가 있는데, 진평왕 51년(629) 8월에 낭비성(포천) 전투에서 신라가 성을 함락하고 3천명을 참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와 신라본기 기록에 동일하게 기록된 것으로 보아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는지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71) 삼국사기의 기록에 638년에 치뤄진 고구려와 신라의 칠중성 전투기록을 가지고 당시 양국의 전략적 방어선이 임진강유역이었다는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603년 북한산성 전투(한강이북), 629년 낭비성전투(포천), 638년 칠중성 전투(임진강 남안)등 기록에 등장하는 양국의 대규모 군이 출정하여

서는 당시 대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고구려는 598년부터 614년까지 수나라, 645년부터 고구려 멸망때까지 당나라와의 대규모 국제전을 치렀다. 이로 인한 국력 분산으로 임진강유역을 포함한 남부전선에 전력을 집중하지 못한 점 등도 고구려가 적극적인 공세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한강이북과 임진강 이남에서 신라와의 크고 작은 국지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선의 형성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된다.⁷²⁾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구려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신라와 방어전선을 형성하였으며, 3대성이 방어의 최전선이었고 그에 따른 3대성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고구려가 임진강 북안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입지와 규모면에서 소규모인 성곽을 최후 방어진지로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이다.⁷³⁾ 따라서 임진강유역의 3대성 가운데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직접적인 군사적 방어기능이 아닌 주변에 인접한 여울목이나 나루터를 통제하는 기능과 함께 파주와 양주 일원에 배치된 전방부대의 후방 작전 지휘소 또는 병참기지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대리성은 고구려의 공격작전시에 예비대의 임시 집결지로 축조 및 사용되어졌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시에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후방의 무등리보루로 방어기능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치러진 전투도 있지만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 소규모 국지전도 다수 행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국의 국력을 집중하여 치러지는 전투에 따라 양국의 전선형성은 당시의 전투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규모 국지전까지 포함하면 전선의 변동은 더 많았을 것이다.

72)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이유가 대중국 출항지를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며, 더불어 남쪽 백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방어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신라 또한 고구려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고, 방어와 국지전에만 집중하지 않았나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3) 그럼 고구려의 최후 방어선은 어디일까? 일단 필자는 임진강유역이 아닌 그보다 후방인 황해도 지역으로 비정하고 싶다. 즉, 고구려의 대규모 성들은 예성강 이북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성곽으로 신원 장수산성(둘레10km), 해주 수양산성(둘레 8.2km), 연안 비봉산성(둘레2.2km), 배천 치악산성(둘레3.6km), 평산 태백산성(둘레 2.4km), 용진 오누이산성(둘레3.5km) 등으로 모두 둘레 3km 이상의 대형 성곽들이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전략전술은 수성전임을 감안하면, 임진강 유역에서 이러한 대형성곽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방어작전시 임진강유역 3대성의 기능을 정리하면, 첫째, 임진강과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편성하기에는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물론 성 남쪽의 임진강과 높이 10~15m 내외의 수직단애라는 천연의 자연장애물을 이용하였으나, 성이 위치해 있는 곳보다 성의 남쪽이 지대가 높아 전투시 성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는 방어작전상에서 가장 위험요인이다. 또한 성내부의 가용면적에서도 은대리성을 제외하고 거점방어를 수행하기에는 협소하다. 이러한 지형적 취약점으로 인해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양주와 파주일대 보루군들이 방어진지를 형성하고 신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후방 지휘소 및 병참기지의 역할을 공격작전에 이어 동일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대리성은 고구려의 남진시 일정기간 임시 주둔지로 운용되다가 방어(후퇴) 및 전선고착시에는 전곡리 목책이 제3기동로에 대해 일정기간 도섭(도하)지점에 대한 방어 기능을 유지하다 후방의 무등리보루로 방어기능이 옮겨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고구려 3대성의 기능 변화

단 계	연도	성곽 운용		
		공격작전(남진)시		
1단계 (공격작전시) 목책단계 토·석혼축 단계 →석축단계	4세기 중·후 반~ 6세기 중반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주공방향 도섭(도하)작전간 지휘소 임진강 교두보 병참기지	보조공격방향 도섭(도하)작전간 지휘소 임진강 교두보 일부 병참기지	보조공격방향 예비대 임시 주둔지 도섭(도하)작전간 지휘소 (전곡리토성 목책유구) 임진강 교두보
		호로그루 : 토축→석축(위례성 점령후 행정치소, 병참기지) 당포성 : 토축→석축 (병참기지) 은대리성 : 방어기능 상실 아차산과 양주일원 등 : 보루 축조		
2단계 (방어(후퇴)/ 전선고착시) 토·석혼축단 계/석축단계	6세기 중반~7 세기 중·후 반	방어작전(후퇴)/ 전선고착시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
		전방부대 전투에 따른 후방작전 지휘소 도섭 및 도하지점 엄호 병참기지	전방 부대 전투에 따른 후방작전 지휘소 도섭 및 도하지점 엄호 일부 병참기지	방어기능 상실 도섭 및 도하지점 엄호 (전곡리토성 목책유구) 후방 무등리보루군으로 방어기능 이동

6. 맺음말

이상으로 임진강유역 3대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환경, 지형적 특징과 성곽의 활용을 군사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3대성은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는 고구려의 공격작전이 본격화 되는 4세기 중·후반~6세기 중반에 해당되며, 이때 3대성은 지금의 석축성이 아닌 목책이나 토축으로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발굴조사 결과 호로그루는 최초에는 목책, 당포성은 토투형태로 축조되었으며, 은대리성은 토·석혼축으로 축조되었다. 기능면에서 공격작전시 호로그루는 고구려의 주공방향에 위치하고, 당포성과 은대리성은 보조공격 또는 우회공격방향에 위치하여, 백제의 반격을 고착견제 또는 방어, 혹은 예비대 집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성곽에 대한 수·개축 실시하여 고구려가 임진강이남을 지나 한강유역과 금강유역까지 진출했을 때 임진강유역의 성곽을 관장하는 행정치소와 병참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방어(후퇴)작전과 전선고착화가 본격화되는 6세기 중·후반~7세기 중·후반이다. 3대성은 임진강과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편성하기에는 입지면에서 취약한 편이다. 성이 위치해 있는 곳보다 성의 남쪽이 지대가 높아 전투시 성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지형적 취약점으로 인해 호로그루와 당포성은 아차산과 양주일대 보루군들이 방어진지를 형성하고 백제와 신라와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후방 작전지휘소와 병참기지의 역할을 공격작전에 이어 동일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당포성도 호로그루보다 소량이지만 고구려기와편이 출토되어 호로그루와 유사한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은대리성에서는 고구려토기와 철기 일부를 제외하고 호로그루와 당포성에 보이는 기와들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유구도 전혀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은대리성은 고구려의 공격작전시에 축조 및 사용되어졌다가 한강 이남으로 진출시에는 그 기능이 상실되고 후방의 무등리보루로 방어기능이 옮겨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4~7세기대 임진강유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고구려의 3대성의 성격을 군사사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기존의 연구가 임진강유역의 3대성의 기능이 단순히 공격이나 방어의 거점이라는 도식적인 고찰에서 벗어나 상황에 맞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찰하려는 임진강유역의 시기폭이 크고 추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추론은 향후 이 지역의 역사자료와 고고학자료의 발굴조사 성과에 의해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가 앞으로 임진강유역 고대 군사사를 규명하는데 일조를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해 보았다. 다만 필자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전장을 임진강유역으로 국한하다 보니 임진강유역 여타 고구려 관방유적과의 관계 및 더 나아가 중부지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구려의 남진, 그에 따르는 병력운동과 무기체계의 활용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했다. 이러한 작업은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 2012. 3. 29, 심사수정일 : 2012. 5. 15, 게재확정일 : 2012. 5. 18)

주제어 : 임진강, 3대성(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공격작전, 방어작전, 전선고착, 한강, 금강, 목책, 기와, 아차산, 무등리보루

<ABSTRACT>

A Review on the Nature of Goguryo's Three Fortresses around the Imjin River Basin

Kwon, Soon-jin

This is to review the nature of Koguryo's three fortresses in the Imjin River basin from the two military historical perspectives.

First one was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last quarter of the 4th century to mid-6th century when Koguryo engaged in offensive operations. Horogoroo was located along the attack route of Baekje, thus it contained Baekje's attack and played a role as an assembly area for the reserve force. Horogoroo and Dangpo fortresses were repaired so that the fortress became strongholds to control surrounding areas and supply bases. While Eundaeri fortress was disused.

Second one was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second half of the 6th century to the second half of the 7th century when turned to defensive operations and the battles were stalemated. The three fortresses were vulnerable to attacks because the areas to the south of the fortresses were higher than the fortresses. For this reason, it seemed that Horogoroo and Dang-po fortresses were used as command posts and supply bases during the battles. It seemed, however, that Eundaeri fortress lost its defensive function and Moodeng-ri fort assumed the role of defense.

Key Words : Imjin River, 3 DAE fortress (Horokoroo, Dan-po fortress, Eundaeri fortress), offensive operations, defensive operations, wire fixation, the Han River, Geum River, fences, tile, Achasan, Moodeng-ri fort